

청자향로, 천년의 신비 속으로



청자사자향로



청자물가풍경무늬향로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9월 17일까지

‘바다에서 건져낸 향기’전

향은 불교를 신봉한 고려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각종 의례와 불교 행사에서 널리 쓰였다. 유교 문화가 유입되던 고려 후기에는 사대부들이 학문에 정진하는 동안 마음의 안정을 찾는 수단으로도 사용됐다.

‘고려사’에 따르면 왕비와 왕태자, 왕자와 왕녀의 책봉이나 왕의 지방 행사 등 왕실 의례와 국가의 공식 행사에 향이 쓰였다고 돼 있다.

오늘날에도 향은 방향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머리를 맑게 해주거나 내면을 다스려주는 용도로도 쓰인다. 어떤 것은 해충제를 차단하는 효과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향 문화는 삼국 시대 불교의 유입과 함께 전해져 오늘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향 문화는 향로의 제작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 문화 도입기에는 불교 의례를 위한 금속제 향로가 사용됐고, 이후 고려 시대에는 도자기로 만든 향로가 사용돼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청자향로의 신비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9월 17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중앙홀)에서 테마전 ‘바다에서 건져낸 향기, 청자향로’를 개최한다.

수중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려 시대 청자향로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고려의 왕실과 귀족들이 사용한 고급 기종인 청자향로를 통해 고려 시대와 당시 상류층이 누렸던 향 문화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 청자향로가 발견된 대표적인 곳



청자동물장식향로

은 보령 원산도(2005년), 태안 대섬(2007년), 진도 명랑대첩로 해역(2012년)이다. 이곳에서 출수된 향로들은 중국 고대 청동기인 정(鼎·중국 고대의 제례 용기로 3~4개 다리와 2개의 귀가 달린 형태)을 모방한 정형향로(鼎形香爐)와 뚜껑에 사자·기린·원앙·오리·용 등이 장식된 동물장식향로로 구분된다.

당시 최고급 청자 생산지였던 강진이나 부안에서 제작돼 고려 수도인 개령으로 향하던 선박들에 실렸다가 서해 바다에 잠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형향로는 권력의 최고 상징으로 여겼으며, 동물장식향로는 일상에서 주로 사용됐다.

태안 대섬에서 발견된 청자사자향로는 신체의 비례와 조형이 세련되지 않지만, 표정이 다소 익살스럽고 친근한 모습을 띠고 있다. 발아

래 공 모양의 물건 두 개를 짓고 있어 기존의 사자향로와는 다른 특이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진도 명랑대첩로에서 발견한 기린과 오리, 원앙 모양 뚜껑을 가진 동물모양향로들은 다른 향로의 뚜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준다. 특히, 오리·원앙 장식의 뚜껑 안쪽에는 연기를 배출하는 구멍이 꽃 모양으로 나오어 고려인들이 미세한 부분까지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청자향로를 매개로 향 문화 속에서의 특유의 해학과 미를 추구했던 고려인들의 수준 높은 미적 감각도 엿볼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1-270-2049/박성천기자 skypark@

무등산서 해남 향토밭까지... 남도의 여름풍광

롯데갤러리 광주점 30일까지 ‘전라도의 여름’전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해남의 붉은 황토밭, 배롱나무 꽃이 절정인 담양 명옥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무등산의 고즈넉한 풍경, 그리고 많은 이들의 휴식터인 소박한 강진의 구멍가게.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한 아름다운 남도 풍광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사시사철 풍경, 인상적이지 않은 때가 없지만 이번에는 한여름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모았다.

롯데갤러리 광주점(롯데백화점 11층)이 오는 30일까지 ‘전라도의 여름’을 연다. 송필용·허달용·윤건혁·장찬홍·조병연 등 지역 작가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았던 남도 풍광을 화폭에 풀어냈고,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미경과 이현열은 자신들의 감성으로 전라도 이야기를 담았다.

송필용은 월출산, 담양, 섬진강의 풍광을, 허달용은 장마 끝 담양 대숲의 이미지를 활달한 필치의 수묵으로 보여준다. 또 변해가는 남도 풍경과 근대 공간들을 사진으로 찍어온 윤

건혁은 전라도 들과 밭을 담은 작품을 출품했으며 남도 문인들의 전통을 지킨 계산 장찬홍 화백은 무등산 풍경을 담은 ‘입석대 연운(鍊雲)’ 등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최근 BBC 방송에 소개돼 화제가 된 ‘구멍가게 시리즈’로 잘 알려진 이미경 작가는 해남, 강진의 오래된 구멍가게를 캔버스로 그렸다. 낡은 한옥 가게와 빨간 우체통, 장판으로 덧씌운 가게 앞 웅덩이 등이 파스란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다. 그밖에 전라도 진경을 담은 조병연은 해남 땅끝마을 바닷가 풍경과 강진 성전면 월허리 여름 달밤을 선보이며 이현열은 푸른 바다와 주민들의 삶터가 어우러진 ‘고흥남열 해수욕장’, ‘보성평야’ 등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와 연계한 행사도 마련했다. 오는 26일(오후 3시30분)에는 이태호 명지대 미술사학과 초빙교수를 초청, ‘고향바다 그리워하며-김환기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한다. 문의 062-221-18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현열 작
‘고흥 남열해수욕장’

▼이미경 작
‘강진 구멍가게’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8월호



어촌체험마을로 떠나는 정겹고 즐거운 여름휴가

안숙선 명창의 60년 소리 인생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작렬하는 땀방울과 폭풍 피는 폭염을 피해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피서를 가야할까?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8월호에서는 특집으로 ‘어촌의 여름은 즐겁다’를 마련했다.

휴가철을 맞아 바지락·맛조개잡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충남 태안 병술만 어촌체험마을을 비롯해 달빛 아래 흰상사화를 보며 해변 산책을 할 수 있는 전북 위도 범금마을, 옛 담집길을 걷고 해녀체험을 할 수 있는 울산시 주전마을을 소개한다. 노숙준 여행 칼럼니스트의 ‘꿈의 여행’은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 떠있는 섬나라 세이셸로 독자들을 이끈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안숙선 명창(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보유자)을 만나본다. 9세에 소리의 길로 들어서 올해로 판소리를 한지 60년을 맞았다. 여전히 ‘더 역동적이고 더 깊이 있는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안 명창의 소리인생과 예술세계에 대해 들었다.

8월에 떠나는 남도 미미라 여행지는 무안이다. 한여름에 꽃망울을 터뜨리는 백련과 ‘한국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된 갯벌, 짙푸른갈매 등 별미는 여행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올 여름 최고의 피서지로 각광받는 ‘녹차수도’ 보성을 찾아가다. 울포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제암산 자연휴양림, 비봉공룡공원, 태백산맥 문화관 등을 찾아가며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할 수 있다.

식품명인 시리즈는 1000년 맥을 이어오고 있는 담양 추성주를 만드는 양대수 명인을 소개한다. 추성주는 ‘눈으로 황금빛깔을 마시고, 코로 부드러운 향을 마시고, 혀로 오감을 자극하는’ 전통 민속주이다. 또한 원형 떡살을 선보인 목공예·떡살 전문가 이상국 씨의 ‘음식과 문화’ 코너도 흥미롭다.

두 번째 동네책방 탐방은 통영에 있는 ‘봄날의 책방’이다. 요즘 대신인 ‘1인 영성미디어’와 주부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브런치 콘서트’도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

이 밖에도 트레이드를 도약의 ‘타닝 포인트’로 삼은 KIA 타이거즈 1번 타자 이명기를 비롯해 송정동에 문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협동조합 이공’, 음악을 나누는 오디오 마니아 건축사 최경양 씨 등 다채로운 사람사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십니다!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